

멸망 위기를 막아라

에스더 4:13-16, 로마서 9:1-5

최정웅 목사님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감사한 말이지만, 북한은 핵을 완전히 소유했다. 핵을 가지고 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전쟁이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겨우 34, 35세 밖에 되지 않았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위기 앞에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흑암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현상이 맞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7-8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27에, 마귀가 지금도 틈타고 있으니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한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33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16:17-18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싸움의 주역이다. 왜냐하면, 승리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사단은 복음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모양이다. 발악을 했다. 대를 끊으려고 분투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어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었다. 바리새인과 로마 제국이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했다. 끝까지 이 흐름을 방해했던 자들은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무엘상 2:10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다. 이 위기에서 건짐받은 이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멸망 위기를 막아야 할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란다.

1. 유대인에게 멸종의 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멸망 정도가 아니라 멸종 위기가 왔다. 씨를 말리려고 한 것이다. 에스더서는 5분, 10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다. 여러분이 한 번 읽어보라.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메데 파사가 점령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나라다. 그때까지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상당히 방자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 왕의 명령을 앞세워서, 하만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궁중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개가 혼자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자기가 총리인데 모르드개는 절을 안 하니, 하만이 저 놈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자기 종교 때문에 절을 안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개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 버리자 한 것이다. 그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왕에게 헌상했다. 그러면서, '왕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족속이 있으니 다 죽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것이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을 다 죽이는 명령이 내려졌다. 유대인에게 멸종 위기가 온 것이다. 이것은 하만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역사하던 마귀의 일이었다.

(1) 유대인을 다 죽이는 것이 왜 마귀의 전략인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멸절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시편 110:1, 4에서 말씀하는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못 오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족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14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오셔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근거를 끊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확실히

사단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 씨가 전달되지 못할 뻔 했던 위기가 몇 번 있었다. 유대의 아들이 없게 되었지 않나.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비정상한 방법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대를 이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아스와 결혼한 롯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지 않나. 롯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이렇게 끊어질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대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다. 원수는 이게 계속 안 되도록 막았던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계획이요 관심사였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류가 살게 되니까. 이것은 사단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원수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다.

(2) 하만의 계획이 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멸종한다는 것은, 전도운동, 램넛운동이 중단된다는 말이다. 복음운동이 중단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페르시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주역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유대 사람 남은 자들이었음을 볼 때 정말 그러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루터기가 일어나야 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은 자들이 포로된 땅에서 응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현장을 살려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귀는 램넛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를 끊으려고 발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이 밀림을 지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렸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를 돕는 이들이 정성껏 간호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교사님이 이제 더 살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 이분은 다시 살아나서 아프리카 선교의 한 획을 그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신학생하고, 법학도하고, 공대생하고 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조폭들에게 붙잡혔다. 끌고 지하실에 가더니 전기의자에 앉힌 것이다. 이런 죽는 것이다. 신학생을 먼저 앉히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정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겁이 나서 그런지 살려주었다. 법학도가 앉더니 또 말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을 살려내는 법의 정의를 믿는다!" 안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앉았더니 진짜로 안 죽었다. 마지막으로 공대생이 앉아서 말했다. "코드가 빠졌는데 죽겠느냐!" (웃음) 코드 꽂아서 그대로 가 버렸다. 하도 안 웃어서 웃자고 한 이야기다. (웃음)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한다. 죽어도 할 말은 해야 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한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유가 있는 자는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풍랑을 만나도 죽을 수 없었다. 사도행전 27:24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란다.

2.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잘 모르는 분은 가서 읽어보라. 5분, 10분이면 읽는다. 너무 흥미롭다. 이 위기 막는 응답이, 아히수에도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온 유대 백성의 딸이 이 멸망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왕후가 되도록 예비하셨던 것이다.

(1) 그중에 중요한 것이,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에스더에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응답은,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시작되었다. 본문에 기록된다.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다. 그런데 삼촌이 돌아가셔서 아이가 고아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사촌 오빠지만 나이가 차이는 꽤 많았던 것 같다.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길러왔던 것이다. 에스더를 기르면서 언약의 후대로, 믿음의 딸로, 기도하는 딸로, 하나님의 딸로 키웠다. 그

러면서 언약을 제대로 심었다. 이 모르드개는 나중에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지 않나? 상당히 실력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왕이 암살을 당할 형편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서 왕에게 알리고 암살 음모를 막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복음 가진 지도자가 바로 모르드개였고 에스더였다는 말이다. 와스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교만한 여자였던 것 같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폐위되었다. 그래서 왕후를 뽑아야 하나, 전국 여자 중에서 덕망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뽑았다. 거기에 에스더가 가게 되었는데, 갈 때 뭐라고 말하는가?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했다.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건너온 사람들이 어느새 통치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했다. 지금도 미국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돈 많은 자들이, 기부를 해도 유대인 단체에만 하나. 그리스도인이 알뜰하게 살면 안 된다. 62가지 속에 그대 들어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도록 지혜와 함께 처신을 전달한 것이다. 말을 안 하면서도 율법과 믿음, 규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어서 들어간 것이다.

(2) 그런데 하만이 총리가 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이 1월인데,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스더가 이게 어찌된 일이나 해서 시너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드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민족을 살려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왕이 암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드개가 하는 것이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개의 믿음이었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제대로 듣고 에스더가,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3일 간 금식할 것을 부탁했다. 자신도 3일 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모르드개가, 이 에스더의 메시지로 한 것이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중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어제는 어느 램넛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웬일이나 했더니, 그동안 자기도 300인에 들어가고 싶어서, 받은 것을 다 모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놓았다. 내가 아직 청년이라서 70인은 못 되지만, 300인에는 들어가고 싶으면서 봉투를 내놓은 것이다. 천만 원을 현금한 것이다. 강단에서 이야기한 것을 램넛트가 가슴 속에 품고 있었구나 싶었다. 기도해주면서, 이 램넛트가 에스더와 같은 각오를 했구나 싶었다. 우리가 이 램넛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숫자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꼭 제비 누가 와서 현금해서 빛을 갚아주어야만 되겠는가. 우리가 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음운동하라고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받으시고 세계살리는 역사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결단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지금 결단하라고 했다.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이때 세 가지 일이 벌어졌다.

① 제일 먼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것이다. 3일 굶은 사람은 원래 얼굴이 초췌해지면서 빛이 난다. 사랑스럽게 된다. 금식 안 해 본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왕이 보고 금후를 내미는 것이다. 지휘봉을 내민 것이다. "왕후여,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라." 말을 안 하나, 또 이야기한다. "네가 요구하면, 그 요구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이더라도 다 들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했다.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규례를 어기고 왔는데도 무조건 오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② 이때 에스더가 바로 하만을 고발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왕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다. "저희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만 총리와 함께 잔치집에 오십시오." 잔치 때 이야기하려나보다 싶어서 허락을 한 것이다. 에스더는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한다. 식사 때 왕이 말한다.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또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잔치를 한 번 더 할 텐데 총리와 함께 꼭 와 주십시오."

③ 그러니까 왕이, 뭐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을 안 하나, 너무 궁금한 것이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읽은 것이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내시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모의한 것을 모르드개가 발견하여 고발함으로써 위기를 막았던 기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르드개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했더니, 아무런 상을 안 줬다는 것이다. 그때 하만은, 왕후에게까지 대접을 받아서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또 밑잡스런 모르드개가 보이니까,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기로 하고 세웠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왕이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왕이 묻는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자기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에 그를 태워서, 나라의 큰 지도자를 그 마부로 삼아서 수산성을 돌게 해서, '왕을 잘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오, 그게 좋겠네." 그러더니, 대문 앞 모르드개를 불러서 그렇게 하고 하만을 시켜 그 고삐를 잡게 한 것이다. 잡자기 역전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신났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겠는가? 그런 기분 나쁜 마음으로 다시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왕이 물었다. "왕후여,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저의 민족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다.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과 왕후의 민족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것이냐?" "이 자리에 있는 하만입니다."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싶어서 왕후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나, 화를 식하려고 뜰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왕의 눈에는, 이게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만과 유대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세력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두고 축하하는 절기가 부림절이다. '부루'라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살 것을 선택하도록 제비를 뽑게 해 주셨다고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위기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면, 악한 세력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줄 믿는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이번주간,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후대의 멸종 위기를 막는 생명 건 결단을 시작해야 한다. 이 시대에 마귀는 후대에 복음을 끊어버리도록 문화와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복음 가진 후대가 현장에서 끊어질 위기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 위기를 해결할 결단과 기도 집중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주여,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지구에 살아남아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나? 선조들의 기도가 이렇게 열매로 맺혀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

말씀을 마치겠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 멸종 위기를 막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포럼이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와 평소에 포럼을 계속 한 것이다. 신앙적 포럼을 계속 하면서 언약을 전달했다. 그러다가 위기 때 중요한 포럼을 했다. 이것이 시대 살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후대와 같이 포럼하시기 바란다. 평소에 3오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는 포럼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그때 바로 믿음의 포럼을 하시기 바란다. 불신앙의 포럼 말고 믿음의 포럼을 하라. 문제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때 불신앙 대신에 믿음이 전달되면 후대는 살아나게 된다. 한 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라. 언약의 말을 전하라.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중요한 결단의 포럼을 나누시기 바란다. 이때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귀중한 언약을 가진 참사랑 가족들이, 이 시대에 멸망의 위기를 막도록, 마귀의 전략을 알고, 그것을 이기는 결단과 기도 집중 속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주간 되기를 바란다.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민족이 전쟁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포럼, 은혜의 포럼, 언약의 포럼 나눌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결단의 포럼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신이 살 뿐 아니라, 가정 가문 나라 민족 세계 살리는 자리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개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